

美國의 對外安保戰略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戰術的 進化

Islamist Strategic Changes against U.S. International Security Initiative

최기남*

〈목 차〉

I. 서 론

II. Terrorism에 대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III. 국제Terrorism 양상

IV.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

V. 결 론

〈요 약〉

Terrorism은 인류사회가 형성되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과 투쟁을 시작하면서 그 수단으로, 문명의 발전과 권력구조를 반영하면서 같이 진화하며 존재해 왔다.

냉전체제 붕괴 후,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확립 과정에서 9.11Terror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이슬람권의 대립이 시현되면서 인류는 테러위협에 공포 속에서 삶의 질을 위협 받고 있다. 미국은 9.11Terror에 대한 응징과 Terror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대(大)중동 민주화 구상”의 로드 맵을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해 강요하면서 군사력에 의한 일방주의적 대외안보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군사적 승리와 전후 5년 동안 4000명에 가까운 희생과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능가하는 전비를 감수하고도 Terrorism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Terrorism은 본질적으로 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며,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약자의 비대칭적 대결방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변화가 불가능한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최근 이슬람테러리즘은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무력에 대해 전술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고도화된 문명과 집약된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Internet을 통해 훈련되고 종교적으로 의식화되고, 알카에다즘에 의해 점조직으로 지원과 지령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이슬람2-3세대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전 서방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힘의 논리에 따른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안보전략의 실패 결과이며, 이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이다. 이런 위협이 서방세계 각국의 대중에 대한 공포로 확산되고, 해결 방법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는 해결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의 확산은 인종간의 분화와 인구 대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제어: 이슬람테러리즘, 미국의 안보전략, Downloadable Jihad, 알카에다즘, 진화

* 경호안전학 박사

I. 서 론

중국 신화 통신은 9.11 Terror 4주기를 맞이하여 국제Terrorism의 상황과 전망을 보도 하면서 미국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쓴 바 있다. 그 후 1년이 지나 5주기를 맞이한 현재에는 대부분의 서방과 미국의 언론조차도 인류는 미국의 Terror와의 전쟁 이전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21세기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9.11 Terror 이후 고수하고 있는 Terrorism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한 일초다강 체제의 구축과 군사력 위주의 힘에 의한 패권주의적 대외 안보전략의 실패를 지적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말, 소련 연방의 해체와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의 종식은 인류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국제협력에 의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양극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문명 간의 충돌양상(Samuel Huntington/ 이희재옮김, 1997:192)이 나타나고,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 자국 이익에 기초한 도덕적 선을 구현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사력 위주의 패권주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Neocon(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구 소련을 대신할 새로운 악으로 호전주의적인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인류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새로운 국면이 야기되게 되었다(중앙일보, 2003. 5.12). 이에 따라 2000년 9월에 발표되었던 미국 방위재건 보고서에서 구체화된 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는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World Trade Center Terror를 계기로 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현실화되었으며, Terrorism이 인류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거대한 경제 디자인을 정치적으로 전이시키고, 자유라는 대의에 연방제 개념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상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9.11 Terror는 미국국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손상과 본토방어에 결정적인 허점을 보인 반면 포스트 냉전시대를 준비하던 미국에게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2차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 문명의 충돌이라는 국제적 우려 속에 중동지역 아랍세계의 이슬람 원리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기독교 세력 간의 대립을 명확하게 시현하였다. 또한 미국은 현재까지도 Terrorism의 근절을 위해서는 선제공격의 개념에서 전쟁도 불사 한다는 군사력 위주의 강력한 대외 안보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Terrorism상황은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희망적이지 못하며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Terrorism의 가장 기본적 속성인 강력한 힘의 논리에 의한 질서와 지배에 대한 저항이며 유일한 생존권적 투쟁수단이란 점에 기인한다. 여기에 이슬람Terrorism은 성전이라는 종교적 이념에 의한 순교적 전투력을 갖춘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의 의지와 국제적 조직과 자금력, 전술적 역량을 보유한 알카에다의 활동으로 더욱 극렬하고 근절이 어려운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도화된 일류 문명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각처에서 인터넷에 의해 교육되고 의식화되는 자생적 Terrorist가 생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잠재적 세포조직(sleeper cell)”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위협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Terrorism근절을 위한 군사력 위주에 강력한 대외 안보전략의 후유증일 수 있으며, 힘에 의한 강한 압박은 문제 해결의 시한적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위협이 생성되며 이런 Terrorism은 전술적 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해 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9.11 Terror를 계기로 한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의 변화를 고찰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군사력 위주의 힘에 의한 Terrorism 근절 노력이 가져온 이슬람 Terrorism의 전술적인 진화와 이런 현상이 야기할 국제Terrorism의 새로운 위협 양상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자 한다.

II. Terrorism에 대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

1. 미국의 본토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상황의 조성

미국 역사상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1914년 영국에 의한 워싱턴DC 공격으로 백악관이 불탄 사건과 1941년의 일본에 의한 진주만 기습을 들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익숙한 공격 형태인 군사력에 의한 공격이었고, 비록 예기치 못한 시기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로부터 나왔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외교와 전쟁이라는 전통적 한계 속에 있었다(존 L. 개더스/ 강규형 역, 2004:110). 따라서 미국의 선택은 상대가 명확한 확인 가능한 지역을 점하고 있는 실체적 정부를 다루고, 손익을 계산하여, 군사적 보복이나 항복을 강요하고, 충분한 보복 능력의 축적과 과시를 통하여 재발 방지와 위협을 지속적으로 억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카에다에 의해 2001년 9월 11일 감행된 WTC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그동안 믿고 누려왔던 바다(3개 대양)에 의한 지리적 격리로 인한 공짜 안보(free security)의 존재가 운송수단의 발달로 중대한 전략적 자산가치가 상실되었음(C.Vnn Woodward 1908-1999)을 보여주었고, 이 범죄조직은 일정한 국가나 지원 세력을 위해 행동하는 것

이 아니며 익명성이 제공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범인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에 관심이 없으므로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될 수 없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억지가 곤란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더욱 참담한 상황은 테러리스트가 선제 공격권을 가지고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선택하고 불과 19명의 희생과 작은 재원으로 3000여명의 인명의 손실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며, 매스컴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미국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허물어졌다는 점이 었다. 이러한 미국의 국토 안보전략의 실패는 냉전 체제하에서의 미국과 소련의 극한대립의 승리를 넘어 그 실질적인 혜택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상정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이상과 목표대로 인류평화가 별다른 저항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안도감에 도취되어 있었음에 대한 반성으로 더욱 증폭되었고, 인류사상 최고의 강국이며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국제정치 문화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초권력적 현존 Hyper-powre가 자신의 본토 내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했으며, 그 위협에 대한 현실적 안전 보장대책이 불확실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현실화 되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른 Terrorism에 대한 공포는 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넘어 고도로 성장된 전 인류의 문명자체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확산되게 되었으며, 21세기 첫 번째 전쟁의 시발과 새로운 국제정치구조 형성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응과 국제 질서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세계 각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안보전략은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2.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의 전환과 영향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의 전환은 9.11Terror을 계기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 국민이 직면한 위협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긴 냉전시대의 전략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보복능력의 확보와 과시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의 전쟁은 물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억지력을 유지하여 왔으나, 9.11Terror는 정면 승부가 아닌 거대한 미국의 필연적 핵심 취약부분에 대한 기습적 공격으로 기존의 대비 태세와 능력으로는 완벽한 억지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실체가 불확실한 다양한 적이 국내를 포함한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인적 이동의 증가, 군사기술과 대량 살상 무기의 운반기술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산되고, 점증할 수밖에 없는 정보판단의 오류와 불확실성으로 미 국민 전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으로 Terrorism을 국가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과 함께 자국민을 보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적으로 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과감한 안보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안보정책 전환의 방향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 경쟁을 불허하며 국익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을 억지하고 억지력이 실패하면 어떠한 적이라도 철저히 궤멸시킨다는 국방정책 목표의 설정이었다.(Donaid H. Rumsfeld, 2001, pp11-13)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타난 Terrorism를 중심으로 한 대외안보전략기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Terrorism을 박멸해야 할 국제적인 기생충으로 지목하고 국제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 하여 조직을 분쇄하고 훈련과 지원을 봉쇄하며 자금과 도피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필요시 군사력을 사용한 전쟁까지도 불사하여 Terrorism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며, 둘째는 반Terrorism정책이나 Terrorism과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세력이나 국가는 미국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등 Terrorism를 가치관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는 현 미행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으로 선제공격과 일방주의를 제시하고 있다(최진욱, 2003:2). 부시 행정부 내의 강경파 Neocon의 주장과 함께 9.11Terror 이후 진행된 군사작전과 관련국가에 대한 압박, 경제적 외교적 제재조치는 이런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 후 2006년도 동보고서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외교적 노력을 우선하고 동맹국과의 공동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목표는 “폭정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확산”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대외적 강경노선은 Terrorism 근절을 위한 성과에서 양면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전쟁의 승리와 이로 인한 국가 지원 Terrorism의 차단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지속적인 시행이 21세기 국제사회에 2분법적인 분명한 태도 표시를 요구하며 독주하게 됨으로써 지역적 민족적 종교적 거부반응과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 대결만으로는 Terrorism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Terrorism과의 전쟁(War on Terrorism)을 투쟁(Struggle against Violence)으로 변경하고 보다 폭넓은 의미의 정치 외교 경제적 요소까지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으나(국가정보원, 2005.8:3), 의회에 이라크 주둔군 증파를 요구하고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대외전략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Ⅲ. 국제 Terrorism의 양상

1. 대Terror전쟁의 시행과 결과

인류의 21세기 첫 전쟁은 Terror와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9.11Terror가 발생한지 27일이 지난 10월 8일 새벽,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이 동참하였으며 세계 40여 개국이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였고, 미국 국민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5000명이 다시 희생될 가능성을 가정한 질문에도 84%의 지지를 보낸 군사작전명 무한정의(Infinite Justice)작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것이다.

〈표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개시까지의 주요 일지

일 시	사 건	내 용
2001. 9. 11	9.11Terror의 발생	뉴욕 WTC와 워싱턴DC펜타곤에 항공기추돌
9. 13	테러용의자 신원확인 발표 군사보복 준비 명령	FBI 추돌항공기 탑승 범인 18명 신원확인 부시 미대통령 보복 작전 준비명령 하달
9. 14	전쟁 비용 예산 배정	미 상 하원 Terror와의 전쟁비용 129억불의 추가예산 배정
9. 16	범인 인도요구	미 정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에 3일 이내에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를 정식 요구
9. 19	아프가니스탄 항전 준비	탈레반 정부, 영공 폐쇄, 국경지대 중화기 및 병력 증강배치, 국민에게 결사항전 촉구
9. 19	미군 전력의 이동개시	미국의 항모 루즈벨트호의 아라비아해 파견, 본토 내 항공기의 페르시아만 이동배치
9. 20	범인 인도 공식 거부	아프가니스탄의 최고성직자회의, 라덴의 자진출국 권유. 범인 신병 인도 공식 거부
9. 22	선발대 이동 UAE 단교 선언	미군 82공수사단, 101 공중강습사단 선발대 파키스탄에 전개 아랍 에미레이트연합, 탈레반 정부와 단교
9. 23	Terror조직의 미국 내 재산 동결 조치	오사마 빈 라덴과 Terror조직의 미국내 재산동결 조치,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의 동참 1998년이래 실시해 온 인도 파키스탄의 경제제재조치 철회
9. 28	파키스탄의 중재 실패	파키스탄이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와 관련 중재를 시도 하였으나 탈레반의 거부
10. 1	과도정부 구성 합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동맹, 이탈리아에 망명중인 자이르샤 전 국왕과 탈레반 정권의 붕괴에 대비한 과도정부 수립에 합의
10. 3	대 Terror전쟁에 협력요청	럼스펠드 미 국무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5개국 순방 협력요청 블레어 영국총리는 러시아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탈레반의 고립화 외교 전개
10 6	작전 병력 이동	미 제10산악사단 병력 1천명 우즈베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배치
10. 7	공격 개시 명령	부시 미 대통령 공격 개시 명령 발표
10 8	작전 개시	대Terror전쟁개시 미국과 영국의 항공기와 미사일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단행

출처; 중앙일보의 기사를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위 <표 3-1> 는 범행의 진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에 의한 일방주의적 보복조치의 조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전쟁 목표는 9.11Terror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와 법정 재판 및 처벌과 알카에다 조직의 근거지와 훈련기지를 색출하고 폐쇄하는 것,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투초기에 공군 해군의 항공기에 의한 제공권의 확보와 주요 공격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으로 지상군의 작전여건을 확보하고, 그 후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한 지상군을 진입시켜 전과확대와 우호적인 북부동맹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중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다국적 연합군을 진주시켜 정치 경제 군사적 핵심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조기승전을 가시화 하였고, 바스람 공군기지 등 주요 전략적 거점과 병참기지를 점령하여 차후 작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전과의 확대와 라덴의 체포, 알카에다 기지의 색출 와해를 위해 델타포스, 해군 특수전 개발단(DevGru), 합동군 특전사(JSOC) 등 대테러 정예부대를 요소별 집중 투입하였다. 전쟁의 결과는 미군과 연합군의 일방적 승리였다. 애초부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긴 대 소련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정파 간의 내전상태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정책의 고수로 인한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의 외면과 오사마 빈 라덴 등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국제 Terrorism을 지원한 혐의로 1999년 11월부터 UN의 경제제재조치를 당한(김중관, 2001: pp163-171) 세계적 경제빈국으로, 최신무기와 무한에 가까운 지원 그리고 인접국가가 포함된 연합군이 동조한 미국과의 정면대결은 그 결과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적 승리와는 반대로 9.11Terror의 직접적인 물증의 확보나 주모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알카에다의 조직과 근거지를 와해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는 개전 초기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주의적 공격에 대해 국제적 반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권의 종교적 연대감(무슬림 형제애)을 자극하여 민족적 종교적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Terrorism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근거지를 상실하고 주변국으로 분산된 탈레반과 알카에다 전사들로 인하여 인접국과 동남아 지역의 위협을 고조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최기남, 2004: 281)

또한 이라크와의 전쟁은 더욱 암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안보전략은 국제여론의 부정적 견해와 세계 13억 무슬림의 반미감정 확산과 심화, 그리고 UN의 결의도 포기한 채, 최후통첩 48시간 후 2003년 3월 20일 11시35분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제거와 민주정부의 건설, 대량살상 무기의 제거를 포함한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새로운 전쟁에 돌입하였다.

〈표 3-2〉 미 연합군과 이라크군의 군사력 비교

구분	연합군			이라크
	미국	영국	기타	
공군	37,000 명	8,100 명	470 명	20,000 명
	총 항공기 : 1,003대 전투기 : 373대 폭격기 : 51대 지원기/기타 : 579대			총 항공기 : 775대 전투기 : 316대 지원기 : 176대 헬기 : 283대
지상군	67,000 명	26,000 명	650 명	375,000 명
	탱크/장갑차 : 1,800대 공격 헬기 : 200여대			탱크/장갑차 : 5,900대 헬기 : 375대
해군	70,000 명	4,000 명	1,153 명	2,000 명
	항공모함 8척 등 총 함정 : 120여척 항공기 : 408대			총 함정 : 18척
해병	70,000명	4,000명		
	항공기 : 372대			
특수부대	5,000 명	1,000 명	430 명	특공여단 : 5 특전여단 : 2
방공군				17,000 명
소계	249,000 명	43,100 명	2703 명	
총계	294,803 명			429,000 명

기타는 호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군 전력/ 이라크 특수부대 7개 여단의 병력 수는 지상군에 포함됨
출처: 공군본부, 공군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 2003;pp6-7

위 〈표 3-2〉는 양자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전력의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전쟁의 양상은 획기적으로 향상된 표적 탐지능력을 바탕으로 다량의 정밀 유도 무기의 효율성으로 적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으며, 이슬람권의 반감을 고려한 작전으로 피아의 인명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다량의 항공 작전으로 적의 전투능력의 상실을 유도하였고, CIA요원을 포함한 특수심리전 요원의 지상 작전 투입 등 전 영역(Full Spectrum)통합작전을 구현하여 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였다. 전쟁과정에서 주변 이슬람권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인한 동맹국의 이탈, 기후예측의 실패로 보급에 어려움 등을 겪었으나 일방적인 공격과 진격으로 개전 26일 만인 4월 16일 군사적 승리가 선언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군사적 승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전쟁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대량살상 무기의 존재를 찾는데 실패했으며 이는 미 정보기관의 오류와 조작으로 밝혀졌다(백종갑, 박준석, 2007;pp220-226).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고 선거를 통한 친이란 시아파 연합의 67%득표로 미국이 의도한대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등(한계레신문, 2005;7.15.11면) 주권을 이양하고 미국의 로드맵을 진행시켰으며, 후세인은 은신 중 체포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그의 추종세력과 함께 극형으로 처형되었다

2. 전후 국제 Terrorism의 근황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2006년도의 Terrorism의 동향을 요약하면 세계적인 Terrorism은 발생 건수에서 2885건(2005년 대비 54% 증가), 사망자수 37936명(2005년 대비 78% 증가)으로 급증 하였으며, 이는 이슬람 극단주의, 민족분리와 극좌, 극우주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성향에서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Terrorism이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이라크전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알카에다의 과격 사상이 전파되면서 자생적 테러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언론이 이슬람과 대립하며 반미, 반서방 Terror가 격화되었고, 아프간, 파키스탄에서의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대정부 공세 등 서남아 지역 테러정세 악화, 스페인, 체첸 등지의 민족분리 종교 인종분쟁이 빈발하는 등, 2006년의 국제테러정세는 『알카에디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슬람 과격세력의 테러위협이 국제사회의 신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었다고 쓰고 있다. 이런 위협은 산유국의 유전시설이나 송유관, 일반대중 교통수단(마드리드 열차테러: 04.3. 런던지하철 테러; 05.7. 인도 뭘바이 열차 폭탄 테러; 05.7.),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공중폭파(05.8.)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 대량 살상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국가정보원, 2006:1-3). 또한 최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월평균 사망자수가 100명을 넘기면서 개전 이래 3450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증가 추세에 있다.(중앙일보, 2006.5.26:13면) 이런 Terrorism의 수적 양적 증가와 지역적 확산 양상은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대Terror태세의 유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의 강구 속에 발생한 현상이며 그 수단과 방법이 전술적으로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후 극도의 혼란 속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종파간의 내전상태로 Terror 혼란장화되고 있으며 정체불명의 테러단체와 용병의 난립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범죄성 Terror 등이 난무하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미국이나 서방제국에 대한 새로운 Terror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IV.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

1. 현대이슬람Terrorism의 변화 과정

Terrorism은 인류사회의 문명과 국제정치의 구조, 종교적 이념과 사상 등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생존하고 진화한다. 현대 국제Terrorism은 초기에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야기했던 미소 냉전시대의 두 초강대국의 지원을 받아 국제적 정치 공작과 대리

전의 수단으로 발전되었고, 냉전 후 급속히 민영화 되어 무장단체들이 재정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쳐 의사국가를 형성하였고 이들의 지원 하에 연대를 모색하여 이슬람교 또는 이슬람 연방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지하드를 벌이는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다(로레타 나폴레오니/이종인 옮김, 2004:424).

최근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로 분류할 수 있는 Terror조직은 전세계를 무대로 100여개에 달하는 많은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활동범위 대상 수범 범인의 신분 등에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대적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의 원조라고 하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1920년대에 에집트에서 결성된 “무슬림 형제”에서 기인한다. 민족주의적 성격의 에집트의 알 지하드, 알 가마 알 이슬라미야와 알제리 이슬람 무장 그룹(AIG)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Terror단체는 독립이 쟁취된 후 독재세력과 비 이슬람정권에 저항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하는 이슬람정권 수립을 목표로 투쟁하는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대두, 이스라엘의 건국과 중동전쟁과정에서 급속하게 국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하여 1982년에 창설된 헤즈블라와 아브니달 등의 출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제국과 이스라엘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군사무기를 동원한 무차별적 Terror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대소 저항과 내전 당시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의 소련 견제 공작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측면 지원된 이슬람 모병소, 무자헤딘을 통해 급성장한 알카에다의 출현은 오사마 빈 라덴의 지도하에 군사조직 자금 무기 정보network을 구비한 세계적 조직으로 이슬람 Terreur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소련의 몰락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의한 양극체제의 해체 후,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9.11Terror는 종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미국을 축으로 한 기독교적 서방세력과 이슬람 세계의 대립으로 시현되고, 이에 대한 보복과 응징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이 진행되면서 이슬람Terrorism은 전 세계적으로 연계를 이루며 종교적 이념으로 의식화되고 단결되었으며, 방법이 과격 무차별화 되고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그자체가 Terrorism이며 또 다른 Terrorism을 잉태하게 된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은 우월한 군사력으로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으며, 중동지역의 전후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은 전쟁에 이기고 평화를 잃는 사태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서방 동맹국이 참여한 군사작전 후, 이라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무장 세력이 나타나고 종파 간 분화와 대립 이권과 정치적 패권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의 개입과 음성적 지원 등으로 극도의 혼돈 양상의 새로운 Terrorism시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과격 시아파 지도자가 주도하는 마흐디 민병대 녹색여단 일신과 성전 등 수많은 반미 반서방 Terror조직의 생성과 장래에 대

한 절망감 빈곤과 실업이라는 암담한 토양에서 성전에 참여하려는 자살폭탄 Terror지원자가 줄을 서고, 종파와 정치 경제적 이권을 노린 정체불명의 용병들의 유입 등 통제 불가능 상태가 지속되고 확산되어, 미국과 동맹국 서방세력 그리고 종파와 경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중동지역의 주변국에 대한 Terrorism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2.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 진화

2007년2월 26일 방한한 프랑스의 대Terror 사령탑 브뤼기예르 수석판사(검찰총장급)는 “Terror가 날로 진화하는 데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중앙일보,2007.2.27,6면) 또한 Terror조직을 바이러스에 비유하고 과거 국가지원이나 빈 라덴 같은 지도부가 기획하고 통제했지만 이제 하부 소조직이나 개인 등이 Terror을 감행한다, 알 카에다도 그렇게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대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이슬람 Terrorism의 진화를 정확하게 진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Terrorism의 본질은 힘으로의 지배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이며, 큰 폭력에 대한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태의 비대칭적 대결방식이고, 변화가 불가능한 사회적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 소집단의 경제성 있는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출현했던 어떤 제국보다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며, 지구상의 200여개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는 총 군사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거느린 미국의 힘에 의한 일방주의적 대외안보정책의 기초는 21세기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구조적으로 Terrorism과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고, 이슬람이라는 배타적 이질집단과의 종교적 이념이 대립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갈등에 의한 문제는 가장 무서운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이념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단계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념의 차이는 서로 인정하며 그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통하여 공존할 수 있으나, 유일신을 신봉하는 종교 간의 차이는 공존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은 그 원천은 같으나 동일 지역과 역사적 정통성의 계승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원초적 반목을 내재하고 탄생하여 생존권을 걸고 경쟁적으로 성장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구조적 패권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경제적 실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중동지역의 이해관계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은 급성장한 절대 진리를 추구하며 샤리아에 의한 신정정치를 통해 종교와 정치의 통합운용을 요구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배타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힘의 격차는 Terrorism이 야기될 여건이 형성되고, 군사적 행동에 의한 격차와 굴욕이 지속되면 그 방법과 대상, 범인 등이 전술적으로 진화되며 종교적으로 의식화되어 심화될 수밖에 없

다. 현재 Terrorism를 근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류의 노력은 미국의 일방적 대외 안보전략과 이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으로 진화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내 전쟁의 현장에서는 물론 지구촌 내의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으며 새로운 적이 자체 내에서 속속 생성되고 그 양상이 예측과 예방에 더욱 어려운 형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이슬람Terrorism은 산악이나 낙도 등 오지의 비밀 아지트에서 훈련되고 알카에다 등 강력한 테러단체나 국가 등의 조직원으로 자금과 지령을 받는 훈련된 전사나 종교적 신념을 가진 특수요원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기존의 개념은 깨졌다. 2002년 모스크바 극장의 인질극의 범인 41명중 18명은 여성이었으며, 2004년 북오세티야 공립학교의 Terror는 연약한 여성이 온몸에 폭탄을 두루고 20여명의 인질과 자폭하였다.

또한 훈련캠프도 없다.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성향은 유럽 내 자국에서 자생된 이슬람조직의 Terrorism위협이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민 2-3세대 무슬림 젊은이들의 전 세계적 지하드 동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유럽 제국의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중앙일보,2005.7.19:13면).

2003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Terror, 스페인 열차Terror의 범인이 자생적 조직원이며, 바로 2005년 7월 1일 발생했던 런던Terror는 범행 직후 알 카에다의 유럽조직이라는 단체가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행 용의자가 하집 후세인(18세), 세자드 탄위르(22세), 린제이 저메인 등 알카에다와 연결된 국내 거주 무슬림 세포조직 청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알카에다의 집중적인 포섭으로 백인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출현할 가능성이 예고된 가운데 2005년 가을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외곽에서 세르비아계 스웨덴인 백인인 미르샤드 벡타세비치(19세)가 체포된 바 있다(중앙일보,2006.4.19; 13면). 이러한 자생적 Terrorism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훈련 캠프에서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소위 Downloadable Jihad라고 하는 사이버상의 사이트를 통하여 집에서 훈련받고 의식화되고 지령을 받아 Terror를 실행한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006년 7월 18일자와 NYT 10일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핵심간부의 75%가 체포되거나 사망하였지만 유럽 각 국내에서는 과거보다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는 새로운 조직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 Homepage “사우드 알 지하드(성전의 목소리)”를 열면 “무아스카르 알 바르타(알 바르타 훈련캠프)” 온 라인 매거진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30여권이 넘는 훈련교본과 강력한 킬러를 육성해 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며 체력단련 스케줄, 무기제조, 사용방법, 범행수법 등과 대Terror작전에 대한 대응 요령까지 단계별로 훈련하고 의식화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알카에다는 국제적으로 일종의 브랜드화 되었으며, 누구나 접근하고 공유 가능하

며 전파할 수 있는 사이버상의 훈련캠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민사회의 문화적 차별과 열악한 환경에서 저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한 이슬람권의 젊은이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구촌 시대에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선량하게만 보이던 어린 청소년이 별다른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등 관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Terror를 언제나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런던의 핀스베리파크 모스크 밖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이슬람 프로파간다의 비디오 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가장 잘 팔리는 내용은 자살 폭탄 Terror범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담아놓은 필름이다(로레타 나폴레오니/이종인옮김, 2004:422).

이런 풍조의 배후에는 전 세계적인 조직과 자금 정보체계를 갖춘 알카에다와 상호 종파와 이권을 달리하는 조직 지도자나 의사국가 등이 있다. 이런 종교적 인종간의 갈등과 위협이 지속될 경우 문화적 충돌을 넘어, 같은 사회 공동체의 이웃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인구의 대이동으로 악화될 우려마저 접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요약하면 현대 이슬람Terrorism의 전술적으로 진화된 모습은 인터넷상의 사이트를 통해 훈련된 평범한 이웃의 이민 2-3세의 이슬람 청년으로, 종교적으로 의식화 되어 죽음을 성전으로 승화시켜 자살 폭탄 테러를 스스로 선택하며, 세계적 Network를 통해 자금과 정보 지령을 받는 조직과 연결되어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이민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저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무차별적 희생에 아무런 죄 의식도 가지지 않는 식별과 근절이 난해한 모습이며, 유럽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희생하며 시행된 Terrorism를 근절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의한 대테러 전쟁과 압박, 일방주의적 대외안보전략의 지속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인간의 원초적 욕구 중의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며 이는 인류의 집단생활을 영위케 하였으며, 사회를 이루고 집단, 부족, 국가, 세계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지구촌 시대와 인류문명을 이룩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쟁을 시작하면서 투쟁을 통한 지배와 저항을 하게 되고 Terrorism은 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Terrorism은 인류사회의 형성과 성장과정을 같이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문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전략은 인류사회의 권력 구조를 반영하면서 진화해 왔다. 21세기 세계는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으며 냉전구조의 붕괴 후 자유와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새롭게 대두된 Terrorism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

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는 현대Terrorism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 고도화된 문명과 집약된 사회구조 환경 및 정보 통신을 활용하여 그 영역과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잘 발달된 매스컴이 현장감 있게 그 공포와 위협을 전달해 주는 Terrorism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면이 있다. 그러나 금세기 인류의 Terrorism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2차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도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정치(politics of power)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역사적 종교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 2007.6.14. 팔레스타인의 민주적 총선에 의해 집권한 합법적 하마스정권의 붕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정치 외교 경제 심지어 문화 예술의 영역에 이르기 까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Terrorism은 본질적으로 힘의 지배에 대한 저항이며,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약자의 비대칭적 대결방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서의 변화가 불가능한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이라는 측면이 있다. 원초적으로 힘의 논리에 대한 반대의 속성이 Terrorism의 본질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군사력 위주의 힘에 의한 Terrorism 근절 노력은 단기적인 효과는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또 다른 Terrorism을 유발하는 원인 될 수 밖에 없다. 9.11 Terror이후 미국의 대외 안보전략은 군사력 위주의 일방주의로 신세계 질서를 선도하면서 미국의 가치관에 의한 “대(大)중동 민주화 구상”이라는 로드 맵을 무력과 전쟁을 통해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의 승리와 관계없이 테러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채 종전5주년을 넘기며 언론의 표현처럼 “암울한 미래에 직면” 하고 있는 것이다. Terrorism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군사력에 의한 굴복의 요구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 종교적 민족적 감정이 개입되면 더욱 그러하다.

오늘의 국제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이슬람Terrorism은 전술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핵심적 진화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Internet을 통한 훈련과 종교적 의식화, 알카에다즘에 의한 점조직적 지령과 지원, 그리고 무슬림 2-3세들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무슬림테러리즘의 전서방세계로의 확산이며, 이는 예측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이 대형화되는 경향이다.

이슬람테러리즘의 전술적 진화는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Terrorism에 대한 대외안보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Terrorism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종교적 문화적 단층을 해소하고 공존의 충분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의 확산이 종교 인종 간의 분화와 인구 대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다.

참 고 문 헌

- 공군본부(2003). 『이라크 전쟁』. 충남: 공군전투발전단
- 국가정보대학원(1999). 『안보론- 이론, 환경, 전략』. 서울: 국가정보대학원
- 국가정보원(2005). 『월간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2007). 『2006년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 김수남(2003). 『중동.아시아 연구』. 서울: 국방대학교 미간행자료집
- 김중관(2001). 『21세기 전쟁』. 서울: 도서출판 두남
- 노암 촘스키/ 이종인 옮김(2005).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 서울: 시대의 창
- 리처드 하스 외/ 장성민 책임편역. 『9.11 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서울: 김영사
- 로레타 나폴레오니/ 이종인 옮김(2004). 모던 지하드;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서울: 시대의 창
- 백종갑. 박준석(2007). “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한국 경호경비학회지』, 13:207-234
- 이성일(2003). “21세기 테러리즘의 전망 및 대응 방향”. 서울: 국방대
- 이태윤(2004).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테러리즘』. 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존L 개디스/ 강규형 역(2004),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경기도: 나남출판
- 최기남(2004). “중동지역의 이념대립과 국제Terrorism전망”. 『대학원 논문집』, 서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최진욱(2002).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서울: 통일 연구원
- 최효찬(1998). 『테러리즘과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하워드 진 외/이수현옮김(2002), 『미국의 이라크 전쟁』. 서울: 북막스
- 황병무(2003). 『탈냉전기의 미국의 안보전략 방향과 한반도』. 서울: 국방대학교 미간행 자료집
- Samuel Huntington/ 이희재옮김(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Francis Fukuyama(1989), The End of History, Washington DC
- Gion Green(1881),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Heinemann
- Jacques Attali(1998), 『Dictionaries du 21 Siecle』. Paris
- J.L Gaddis(2002), A Grand Strategy of Transformation, Foreign Policy, Issue 133

John Ankerberg(2001). 『Fast Facts on Islam』 . Oregon

Yosset Bodansky(2001). 『Bin Laden: The Man who Declared War on America』 .
WashingtonDC

인디펜던트(2005). 7.24: 2면

중앙일보(2003). 5.12: 13면

중앙일보(2003). “보수와 진보 균형, 결국 회복될 것” 9.29

중앙일보(2005). 7.19: 13면

중앙일보(2006). 5.26: 13면

중앙일보(2007). “테러 소규모 조직으로 진화 알카에다 한국 들어올 수도” . 2.27

한계레신문(2005). “소외된 무슬림 유럽인 자생 테러 불씨” . 7.15Organizational Design,
Berrett Koehler

ABSTRACT

Islamist Strategic Changes against U.S. International Security Initiatives

Choi, Kee-Nam

Since the beginning of human society, there have always been struggles and competition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terrorism is not a recent phenomenon, however in modern times it has progressed to reflect the advances in civilization and power structures. At the time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the U.S. A., a new world order wa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after the breakdown of the Cold War era. The attacks drove both the Western and the Islamic worlds into heightened fear of terrorism and war, which threaten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whole mankind. Through two war campaigns against the Islamic world, it seems the U.S. has been pushing its own militaristic security road map of the Greater Middle East democratic initiative, justifying it as a means to retaliate and eradicate the terrorist threats towards themselves. However, with its five-year lopsided victories that cost the nation almost four thousand military casualties, and the war expenses that could match the Vietnam war, the U.S. does not yet seem to be totally emancipated from the fears of terrorism.

Terrorism, in itself, is a means of resisting forced rules a form of alternative competition by the weak against the strong, and a way of expressing a dismissive response against dictatorial ideas or orders which allow for no normal changes. Intrinsically, the nature of terrorism is a reaction opposing power logics. Confronted with the absolute military power of the U.S., the Islamic strategies of terrorism have begun to rapidly evolve into a new stage. The new strategies take advantage of their civilization and circumstances, they train and inspire their front-line fighters on the Internet, and issue their orders through the clandestine network of the Al Qaeda operatives. These spontaneously generated strategies have been gained speed among the second, and third Islamic generations, many of whom are now spread throughout western societies.

This represents a failure of the power-driven, one-sided overseas security initiatives by the U.S., and is creating a culture of fear and distrust in western societies. It is

feared that the U.S. war campaigns have made the clash of religions far worse than before, and may ever lead to global ethnic separations and large-scale population movements. Eventually, it may result in the terrorist groups, enlarged and secretly supported by the huge sums of oil money, driving all mankind into a series of irreparable catastrophes.

Key word: Islamic Terrorism, The U.S. Security Initiatives, Al Qaedaism, Evolution